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의 특수식물(特殊植物)

朴萬奎

- 一. 천연물보존(天然物保存)의 필요성(必要性)
- 二. 천연기념식물(天然記念植物)의 이대별(이대별)
- 三. 거수명목(巨樹名木)
- 四. 진귀(珍貴)한 식물(植物)
- 五. 도서(島嶼)의 식물상(植物相)
- 六. 식물분포상(植物分布上)의 경계(境界)
- 七. 재배식물(栽培植物)의 원산지(原產地)
- 八. 천연보호구(天然保護區)

◇ 천연물보존(天然物保存)의 필요성(必要性)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라 함은 한 나라, 한 고장의 천연물 중(天然物中)에서 그 나라, 그 향토(鄉土)를 대표(代表)할 수 있는 천연물(天然物)을 말한다. 예(例)를 들면 거수명목(巨樹名木), 진귀(珍貴)한 동식물(動植物), 고유(固有)한 생물상(生物相), 식물분포상(植物分布上)의 경계(境界), 재배식물(栽培植物)의 원산지(原產地), 특수(特殊)한 광물(鑛物), 암석(岩石), 지질 등(地質等)은 모두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 되는 것이다.

문화(文化)가 향상(向上)하고 공업(工業)이 발달(發達)하여 천연물(天然物)의 이용도(利用度)가 높아가고, 인구(人口)의 증가(增加)는 교통(交通)의 발달(發達)과 더불어 토지(土地)의 이용도(利用度)가 높아감에 따라서 원시적(原始的)인 천연물(天然物)의 파괴(破壞)가 나날이 우심(尤甚)하여 가는 것이 선진국(先進國)의 실정(實情)이었다. 만일 이대로 방치(放置)한다면 풍경상(風景上) 또는 학술상(學術上) 커다란 손실(損失)을 가져오게 되는 동시에(同時)에 다시는 복원(復元)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에 관(關)한 방지책(防止策)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먼저 외친 것이 바로 독일(獨逸)이다. 그들은 먼저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보존(保存)에 관(關)한 법률(法律)을 제정공포(制定公布)하고 1906년(一九〇六年)에는 국립천연기념물 보존국(國立天然記念物保存局)을 설치(設置)하여 초대국장(初代局長)으로 그 방면(方面) 선각자(先覺者)인 H. Conwentz 박사(博士)를 임명(任命)하였다. 보존국(保存局)을 중심(中心)으로 이 사업(事業)이 활발(活潑)하게 전개(展開)되어 풍경상(風景上), 학술상(學術上) 가치(價値)있는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모두 국가소유(國家所有)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 소재(所在)하는 지역(地域)도 보존(保存)하는 관계(關係)로 그 명칭(名稱)을 천연보호구역(天然保護區域)으로 하였다. 독일(獨逸)과 전후(前後)하여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보존(保存)을 위한 국립공원법(國立公園法)을 제정공포(制定公布)하여 정부(政府)에 국립공원위원회(國立公園委員會)를 두고, 1909년(一九〇九年)에는 보존사업(保存事業)을 주관(主管)하는 서서천연보호협회(瑞西天然保護協會)라는 유력(有力)한 공공단체(公共團體)의 발족(發足)을 보았다. 현재(現在) 이 회원(會員)의 수

(數)가 총인(寵人)구의 약5할(約五割)이라고 한다. 회비(會費)가 저렴(低廉)하여 국민학교 학생(國民學校學生)들도 다수(多數) 참가(參加)하였고, 회원(會員)에게는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에 관(關)한 사진(寫眞), 해설서(解說書), 그림엽서(葉書), 회보(會報)를 배포(配布)하고 있다. 따라서 서서(瑞西)의 알프스를 중심(中心)으로 하는 국립공원(國立公園)의 천연물(天然物)이 잘 보존(保存)되었으므로 세계(世界)의 관광객(觀光客)들이 몰려 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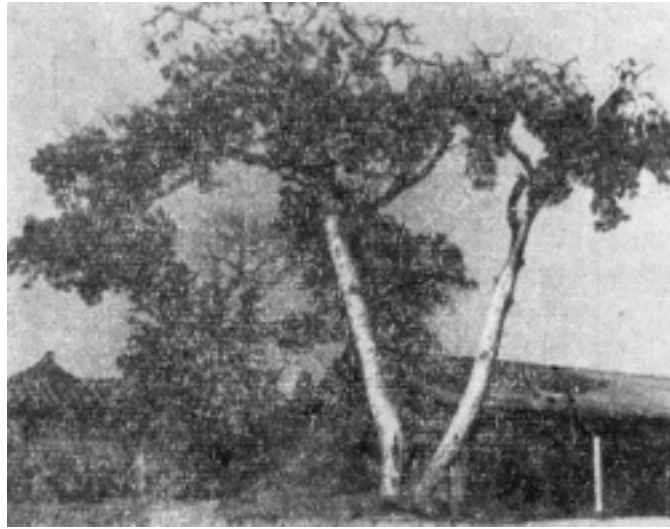
미국(美國)에서도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을 보존(保存)하기 위하여 국립공원(國立公園)을 설정(設定)하고, 한국(韓國)과 일본(日本)에서도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써 보존(保存)하고 있다.

◇ 천연기념식물(天然記念植物)의 이대별(二大別)

세계(世界) 각국(各國)의 식물(植物)에 관(關)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分類)한다. 그 하나가 세계적(世界的)인 식물(植物)이며, 다른 하나가 지방적(地方的)인 식물(植物)이 된다. 세계적(世界的)인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는 없는 진귀(珍貴)한 식물(植物)을 말한다. 예(例)를 들면 미국(美國) 서부해안(西部海岸)에 있는 Sequoia국립공원(國立公園)에만 있는 Sequoia라는 수목(壽木)이다. 줄기의 직경(直徑)이 10m(一〇m), 높이가 90m(九〇m), 수령(樹齡)이 4,000년(四,〇〇〇年)으로 추정(推定)되는 거수(巨樹)이다. 이 나무는 지질시대(地質時代)에는 북반구(北半球)에 상당(相當)히 넓은 지역(地域)에 생육(生育)하고 있었으나, 모두 절멸(絶滅)하고 이곳에만 남은 유존식물(遺存植物)의 일종(一種)이다. 또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지나(支那)와 일본(日本)에 한(限)하여 있는 은행나무도 과거(過去) 지질시대(地質時代)에는 구라파(歐羅巴)에까지도 분포(分佈)되었던 것인데 절멸(絶滅)되고 동아시아(東亞地域)에만 남은 유존식물(遺存植物)이다.

지방적(地方的)인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라는 것은 그 지방(地方)에서는 희귀(稀貴)할지라도 다른 지역(地域)에 널리 분포(分佈)된 것을 말한다. 가령(假令) 제주도(濟州道)의 토끼섬 문주란(文珠蘭)의 자생지(自生地)는 한국(韓國)으로서는 유일(唯一)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나 그러나, 문주란(文珠蘭)은 인도양연안(印度洋沿岸), 태평양연안(太平洋沿岸)의 열대(熱帶), 아열대(亞熱帶), 난대지역(暖帶地域)에 널리 분포(分佈)하는 해안식물(海岸植物)의 일종(一種)으로서, 지방적(地方的)인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에 불과(不過)하다. 다만 제주도내(濟州道內)에 여러 섬이 있으나 그러나, 토끼섬에만 있다는 점은 조류(潮流), 토양(土壤), 기온 등(氣溫等)의 환경조건(環境條件)이 그 생육(生育)에 알맞는 까닭이므로 식물생태학(植物生態學)을 연구(研究)하는데 좋은 대상(對象)이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에 의거(依據)하여서 지정(指定)하여 보존(保存)하고 있는 식물(植物)에 관(關)한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 89건(八九件)이 있다. 그 중(中)에서 특수(特殊)한 것 몇 가지만 간추려서 소개(紹介)하려 한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第8號 서울제동(齊洞)의 백송(白松)

◇ 거수명목(巨樹名木)

수목 중(樹木中)에서 거대(巨大)한 용적(容積)을 가진 것이 거수(巨樹), 진귀(珍貴)한 수종(樹種), 수형(樹形)이 잘 발달(發達)하거나 또는 특수(特殊)한 수형(樹形)을 갖춘 것과 아울러 보통수종(普通樹種)으로서 향토적(鄉土的)으로 애호(愛護)하는 것을 명목(名木)이라고 한다. 우리 나라의 거수(巨樹)로서 대표적(代表的)인 것은 양주군(楊洲郡) 용문사(龍門寺) 입구(入口)에 있는 은행나무다. 이것은 암컷으로서 해마다 은행을 많이 따게 된다. 이 나무의 흉고주위(胸高周圍)가 14m(一四m), 높이가 60m(六〇m) 수령(樹齡)이 1,200년(一,二〇〇年)으로 추산(推算)되는 거수(巨樹)이며 노수(老樹)로서 동양(東洋) 제1위(第一位)를 차지하며 수세(樹勢)가 좋아서 앞으로 수백 년(數百年) 더 살수 있는 것으로 간주(看做)된다.

명목(名木)으로서는 보은군(報恩郡) 법주사(法住寺) 입구(入口)의 배송(輩松)을 들 수 있다. 소나무인데도 불구(不拘)하고 수형(樹形)이 특수(特殊)하여 다른 소나무와 구별(區別)이 되고 반송(盤松)과도 다르며, 더욱 정이품(正二品)이라는 작위(爵位)를 탄 명목 중(名木中)에서도 으뜸가는 것이다. 그가 지니고 있는 비화(秘話), 전설(傳說)은 우리 민족(民族)으로 하여금 수목(樹木) 애호(愛護)의 사상(思想)을 고취(鼓吹)시키고 있다.

이밖에도 당산목(堂山木)으로서 거수명목(巨樹名木)에는 느티나무, 팽나무, 소나무, 왕버드나무 등(等) 여러 가지가 있다.

역사적(歷史的)인 명목(名木)으로서는 서울, 예산(禮山), 밀양(密陽) 보은(報恩)의 백송(白松)을 들 수 있다. 백송(白松)은 이름 그대로 수피(樹皮)가 백회색(白灰色)이라는 것이 특징(特徵)이다. 원래(元來) 북지나(北支那) 북경지방(北京地方)의 원산(原産)인데, 과거(過去) 우리 조상(祖上)들과 지나(支那)와의 왕래(往來)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證明)하는 유일(唯一)한 자료(資料)가 된다. 북경(北京)에서 취종(取種)하여 서울에서 재배(栽培)에 성공(成功)하여 다시 그것이 지방(地方)으로 퍼진 것이다.

경주(慶州)의 지나(支那)주엽나무도 지나원산(支那原産)인데 이 지역(地域)에 있는 것은 과거(過去)의 지나관계(支那關係)를 엿볼 수 있는 존재(存在)이기도 하다.

제주도(濟州道) 중문리(中文里)의 녹나무는 상록수(常綠樹)로서의 거수(巨樹)인 동시에 우리 나라에서는 희귀(稀貴)한 수종(樹種)이나 일본(日本)과 대만(臺灣)에는 널리 분포(分佈)되고 있다. 녹나무의 재목(材木)으로 의랑을 짜면 의복(衣服)의 해충(害蟲)인 좀이 생기지 않는 까닭에 남벌(濫伐)하여 현재(現在) 거수(巨樹)로서 남아 있는 것은 4~5주(四~五株)에 불과(不過)하다. 원래(元來) 이 나무의 잎과 어린 가지에서 장뇌(樟腦)를 만들고, 다시 캄플주사약(注射藥)을 만들어내는 약용식물(藥用植物)의 일종(一種)이다. 구례군(求禮郡) 화엄사(華嚴寺) 경내(境內)에 있는 울벗나무의 거수(巨樹)는 벗나무들 중(中)에서 가장 으뜸가는 것이며 꽃이 많이 붙어서 만개(滿開)할 무렵에는 겨울에 눈으로 덮여는 것 같이 보인다. 울릉도(鬱陵島) 도동 부근(道洞付根) 암벽(岩壁)에 있는 향나무는 수형(樹形)이 기묘(奇妙)하고 노수(老樹)로서 값이 있는 명목(名木)의 한가지다.

◇ 진귀(珍貴)한 식물(植物)

진귀(珍貴)한 식물(植物)이라 함은 분포(分佈)가 어떤 곳에 한정(限定)되었고, 다른 나라에는 없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여도 우리 나라에는 극히 드문 것을 말한다. 이 중에는 지질시대(地質時代)의 유존물(遺存物)과 어떤 시대(時代)에 새로이 생긴 특수(特殊)한 식물(植物)도 있다.

충청북도(忠淸北道) 진천(鎭川)과 괴산(槐山)의 미선나무는 세계(世界) 어느 곳에도 없는 매우 희귀(稀貴)한 식물(植物)이다. 수형(樹形)과 꽃이 개나리와 흡사(恰似)하다 그러나 꽃이 보라색이라는 점이 다르고, 더욱 열매가 마치 미선과 같이 생긴 점은 아주 다른 것이다. 관상목(觀賞木)으로서도 가치(價値)가 있고, 이미 미국(美國) 하버드대학부속 식물원(大學附屬植物園)에서도 이것을 가져다가 심어서 식물학자(植物學者)의 주목(注目)을 끌고 있다.

속리사(俗離寺)의 망개나무도 한국특산식물(韓國特産植物)이었는데 보존(保存)의 소홀(疏忽)로 인(因)하여 고사(枯死)되었으나 다행(多幸)히도 어린 것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그 뒤에 알게 되었다.

제주도(濟州道) 서귀포읍(西歸浦邑) 동(東)쪽에 있는 섭섬에는 여러 가지 희귀(稀貴)한 식물(植物)이 많은 곳인데, 그중 일엽고사리는 다른 열대(熱帶) 및 아열대(亞熱帶)에 널리 분포(分佈)한 것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과거(過去)의 유존식물(遺存植物)로서 값이 있는 것이다. 불행(不幸)하게도 그 섬의 수목(樹木)을 남벌(濫伐)하고 아울러 원예용(園藝用)으로 캐낸 탓으로 지금은 거의 절종상태(絶種狀態)에 있다.



진천(鎭川)의 “미선나무” 자생지(自生地)

◇ 도서(島嶼)의 식물상(植物相)

도서(島嶼)는 해류(海流)의 영향(影響)을 받는 까닭에 특수(特殊)한 식물상(植物相)이 발달(發達)하고 또 신앙관계(信仰關係)로 당산주변(堂山周邊)의 수목(樹木)을 보호(保護)하는 까닭에 원시림(原始林)에 가까운 것까지 남아 있는 곳도 많다. 그 중에서 완도군(莞島郡)의 주도(珠島)는 상록수(常綠樹)로 된 원시림(原始林)인데 수종(樹種)이 풍부(豐富)하기로 우리 나라의 으뜸이 되어, 풍경상(風景上) 학술상(學術上) 가치(價値)있는 것이다. 원래(元來) 상록수림(常綠樹林)은 완도이외(莞島以外)의 지역(地域)에도 번성(繁盛)할 수 있는 조건(條件)을 갖추고 있으나, 남벌(濫伐)한 결과(結果)로 없어지고 이 곳에만 보존(保存)되어 온 유일(唯一)한 존재(存在)다.

강진군(康津郡) 까막섬의 후박나무를 주림(主林)으로 하는 상록수림(常綠樹林), 외연도(外烟島)의 후박나무순림(純林)은 모두 해류(海流)의 영향(影響)으로 난대성식물(暖帶性植物)이 생육(生育)하며, 홍도(紅島)의 식나무, 나도풍란도 난대성식물(暖帶性植物)에 속한다.

거제도(巨濟島)의 팔손이나마의 자생지(自生地)는 다른곳에는 전연(全然)없는 희귀(稀貴)한 것인데, 팔손이나마는 현재감상용(現在鑑賞用)으로 널리 분재(盆栽)하고 있다.

◇ 식물분포상(植物分布上)의 경계(境界)

식물(植物)은 각각(各各) 일정(一定)한 분포구역(分布區域)을 가졌으므로 한대(寒帶), 온대(溫帶), 난대(暖帶), 열대(熱帶)의 식물상(植物相)이 각각 달라진다.

동백나무는 동아시아식물(東亞植物)의 난대(暖帶)를 대표(代表)하는 표준식물(標準植物)인데, 남해 중(南海中)의 각(各) 도서(島嶼)와 남부지방(南部地方)에 널리 분포(分布)되었고 동(東)쪽은 울릉도(鬱陵島)에까지 분포(分布)되었으나 서해(西海)쪽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위도상(緯度上)에 위치(位置)하는 황해도(黃海道) 대청도(大靑島)와 소청도(小靑島)에까지 이르렀다. 이 질(質)은 동백나무의 자생지(自生地)로써 북(北)쪽 한계선(限界)

線)이 되는 곳이다.

후박나무는 외연도(外烟島)가 그 자생지(自生地)의 북한(北限), 줄사철나무는 김식군(金湜郡)이 북한(北限), 비자나무는 장성군(長城郡) 백양산(白羊山)이 수한지(水限地)가 된다. 부안군(扶安郡)의 변산반도(邊山半島)는 일반(一般) 난대성식물(暖帶性植物)의 북한지대(北限地帶)로 손꼽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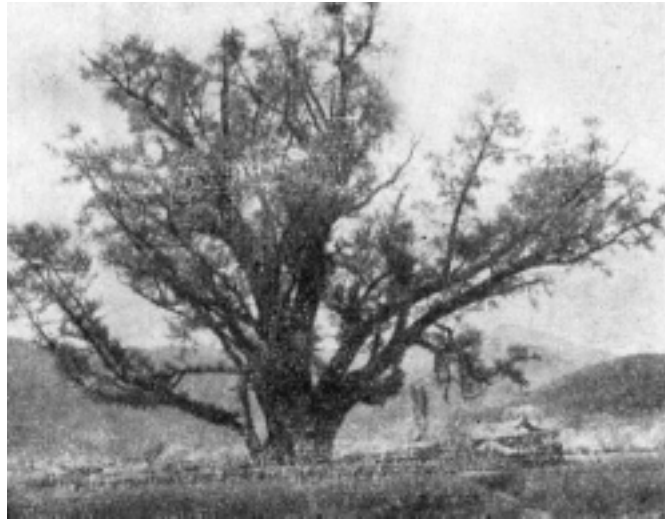
◇ 재배식물(栽培植物)의 원산지(原產地)

인생(人生)에 필요(必要)한 배양식물(培養植物)은 원래(元來) 산야(山野)에 자생(自生)한 것을 재배(再拜)하면서 품종(品種)을 개량(改良)하여온 것이다. 이러한 원종(原種)이 간혹 지구상(地球上)에 남아 있는 것이 있다. 원종(原種)은 모두 배양식물(培養植物)의 조상(祖上)이므로 그 산지(產地)는 영구(永久)히 보존(保存)되어야 한다.

왕벚나무는 일본인(日本人)들이 국화(國花)로 널리 재배(再拜)하고 애완(愛玩)하는 것인데 일본(日本)에는 자생지(自生地)가 없고 제주도(濟州道) 한라산(漢拏山)에 그 자생종(自生種)이 있다. 이 자생종(自生種)을 처음 발견(發見)한 것은 1908년(一九〇八年) 4월(四月) 15일(一五日)에 당시(當時) 그곳에 계시던 Taquet신부(神父)의 공적(功績)이다. 그 뒤 일본인(日本人) 식물학자(植物學者)에 의(依)하여 새로이 일주(一株)가 추가(追加)되었고 1962년(一九六二年) 이래(以來), 필자(筆者)를 비롯한 부종휴씨(夫宗休氏等)에 의(依)하여 추가발견(追加發見)된 것이 10여주(一〇餘株) 있다. 큰 것은 둘레가 3m16cm(三m一六cm)가량 되는 고목(古木)도 있다. 금년(今年) 봄에는 해남군(海南郡) 대북산(大北山)에서도 왕벚나무 자생종(自生種)을 3주(三株) 찾아내게 되었다. 따라서 왕벚나무의 자생지(自生地)는 한라산(漢拏山)과 대북산(大北山)이 되며, 그 재배종(栽培種)의 원종(原種)이 이 두 곳에 남아 있으므로 왕벚나무의 원산지(原產地)라고 단정(斷定)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일본인(日本人) 식물학자(植物學者)들은 종전(從前)부터 일본 내(日本內)의 자생지(自生地)를 찾고 있었으나 소망(所望)을 이루지 못하자, 그들은 왕벚나무는 잡종(雜種)으로 합성(合成)된 것이라는 엉뚱한 주장(主張)을 하고 현재(現在) 많은 경비를 써가면서 잡종육성(雜種育成)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원종(原種)이 한라산(漢拏山)에 자생(自生)한다는 사실(事實)은 뒤집지 못할 것이다. 제주도(濟州道)에서는 왕벚나무를 사육 또는 참사육이라고 하여 의장을 만드는데 좋은 목재(木材)로 쓰고 있는 까닭에 쓸만한 것이면 베어버린 결과(結果)로 그 수(數)가 매우 줄어 졌고, 앞으로도 보호책(保護策)을 철저(徹底)히 하지 않으면 현재(現在) 남아 있는 것도 없어질 우려(憂慮)가 있다.

왕벚나무의 기원(起源)에 대(對)하여 일본인학자(日本人學者)가 주장(主張)을 달리하여도 이것은 제주도(濟州道)와 반도부(半島部)가 서로 연결되었을 때에 두 지역(地域)을 중심(中心)으로하여 새로이 생긴 것인데, 그 뒤에 제주도(濟州道)가 분리(分離)됨에 따라서 두 곳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추측(推測)된다.

울릉도(鬱陵島)에는 오동나무의 원종(原種) 자생지(自生地)가 있다. 널리 재배(栽培)하는 이 나무의 원산지(原產地)를 가졌다는 것은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된다.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第64號 두서면(斗西面)의 은행(銀杏)나무

◇ 천연보호구(天然保護區)

천연보호구(天然保護區)는 학술상(學術上)으로나 관광자원(觀光資源)으로서 가치(價値) 있는 원시림(原始林)을 비롯하여 동물(動物), 광물(鑛物), 지질(地質)을 포함(包含)하여 일정(一定)한 구역(區域)을 설정(設定)하여 보호(保護)하는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이다. 이미 일정시대(日政時代)에 함경남도(咸鏡南道) 북수백산(北水白山)이 천연보호구(天然保護區)로 지정(指定)되었다. 이 밖에도 한라산(漢拏山) 천연보호구(天然保護區), 설악산(雪岳山) 천연보호구(天然保護區)의 보존절차(保存節次)를 밝고 있다.

또 장래(將來)에는 울릉도(鬱陵島)를 비롯하여 원시림(原始林)이 남아 있는 자연풍경지(自然風景地)는 가급적(可及的) 천연보호구(天然保護區)로 지정(指定)하여 영구보존(永久保存)을 꾀하여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걸쳐서 학술연구자료(學術研究資料)와 관광자원(觀光資源)으로 쓸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필자(筆者) 고려대학(高麗大學) 교수(教授))

고려경(高麗鏡)

고려시대(高麗時代)에 만들어진 거울을 말하며 송원경(宋元鏡) 계통(系統)을 받았으며 형(形)은 원형(圓形), 방형(方形), 사릉(四稜), 육릉(六稜), 팔릉(八稜), 오화(五花), 팔화(八花), 우절방형(隅切方形), 엽형(葉形), 경형(鏡形), 등외(等外)에 병경(柄鏡)이나 현경(懸鏡)도 있다. 배문(背文)에는 식물(植物), 동물(動物), 인물(人物), 기물(器物), 및 문자(文字)등(等) 각종(各種)의 것이 사용(使用)되어있다. 또한 송대(宋代)에 고경(古鏡)을 원형(原型)으로 하는 재범경(再範鏡)의 제작(製作)이 성행(盛行)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려경(高麗鏡)에서도 한경(漢鏡) 당경(唐鏡) 화경(和鏡) 등(等)을 원형(原型)으로 한 것이 많고 문양(文樣)이 희미하고 금질(金質)이 떨어진 각종(各種)의 거울이 있다.